전남도, 10월 개최 전국체전·장애인체전 '안전 확보' 최선

시 · 군 · 민간전문가 개 · 폐회식장 합동 안전점검 "철저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최선"

전남도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'제104회 전 국체육대회·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'가 국민이 안전한 성공체전으로 개최되도록 대대 적인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.

이번 안전 점검은 도, 시·군, 유관기관과 민 간전문가 등 30여 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추 진한다.

개·폐회식이 열려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

예상되는 목포종합경기장, 목포실내체육관 등 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.

점검반은 '개·폐회식 안전요원 배치·안전관 리 계획', '공사 현장 구조물 설치·건설기계 작 동 상태', '시설물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', '누 전차단기 · 전선 노출 여부', '가스 배관 고정 · 가 스누출 여부', '화기 관리·화재 진압장비(소화 기) 배치 여부', '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·비상

통화 장치・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' 등을 집 중 점검한다.

안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 서 바로 시정·계도 조치하고, 절대 공기 등 즉 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집중호우 기간 이전 까지 보수·정비계획을 세워 조속히 보완해 안 전조치를 실행토록 할 예정이다.

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28일 "양대 체전이 2008년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리는 만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 이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



광주시,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나선다

공공배달앱 다회용 배달·개인용기 포장 매장 모집

광주시는 1회용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와 협업, 다회용 기 사용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'용기낸 매 장'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.

'용기낸 매장'은 매장의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뒤 수거하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매 장이거나 개인용기에 식음료 등을 포장해 주는 '내 용기 포장 가능 매장'을 이른다.

대상은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이다.

광주시는 용기낸 매장 100곳 이상이 모집 되면 매장 이용 후기 인증자에게 주문금액 의 10%, 최대 3000점(3000원)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모집 기간은 6월 말까지다.

광주시는 '용기낸 매장'을 홈페이지와 사 회 관계망 서비스(SNS)를 통해 홍보할 예정 이다.

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"주문 1건 에 1회용품 수십 개가 배달돼 지구에 미안 함을 느꼈던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고, 참여 매장은 친환경 매장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"라며 많은 참여를 바랐다.

이슬비기자



광주시교육청 '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' 추진

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지역을 '교육국제화 특구'로 지정하기 위해 광주시·광산구와 공동

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기 (2023~2027년)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 광주시·광산구와 협력해 31일 신청서를 제출 한다고 29일 밝혔다. 교육부는 심사과정을 거 쳐 다음달 말께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

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 업은 '세계 시민 양성형' '글로벌 교원 육성형' '해외 인재 유치형' 등이다.

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, 교원 대상으로 다 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 로 교육부의 추진 사업에 도전한다.

또 최근에는 광주시, 광산구와 공동으로 주 민, 학부모, 교원 대상 공청회를 열어 '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·신청'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이정선 교육감은 "광산구 지역은 다양한 세 계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어 최적의 글 로벌 교육지역이다"며 "광주시, 광산구 등과 입체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'교육국제화특구 사업'에 도전하겠다"고 밝혔다.

이어 "광산구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 정되면 지역의 학생들이 민주, 인권, 평화, 문 화 다양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 는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"고 밝혔다.

임형택기자

"6월2일은 유기농데이"…전남 남악 중앙공원서 행사 풍성

무안 남악공원서 유기농업 인식확산·소비촉진 행사



8 정원3호 태양광발전소

10 봉황솔라팜 태양광발전소

9 희망 태양광발전소

"6월2일 유기농데이 행사장에서 다양한 체 험도 즐기고 친환경농산물 구입하세요."

전남도는 오는 6월2일 남악 중앙공원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국민적 인식 확산과 친환 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'2023 유기농데이 기념행사'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.

유기농데이 기념행사는 (싸전남친환경농업 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

'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한입'을 주제로 기념 식, 초대가수 공연, 퀴즈대회, 노래자랑, 보물 찾기, 유기농 쌀 떡메치기, 유기농 군고구마 나 눔,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이 풍성하게 열린다. 반려식물 키우기, 식생활 교육 홍보관 등 전 시·홍보도 진행한다.

친환경농업협회·한살림생협·아이쿱생협· 지오쿱·소비자연맹·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

(956m²/11,570m²)

(980m²/11,570m²)

(1,017m²/11,570m²)

10여개 소비자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 터를 운영해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.

이들 단체는 유기농업 홍보를 위해 직거래 장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원 할인쿠폰 4000매 상당을 사전 배포할 예정이다.

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"케이(K)-유기농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남의 위상과 맞 는 유기농데이 기념일을 적극 홍보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과 소비자와의 유대관계를 촘촘히 잇겠다"고 말했다.

(새전남친환경농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단체가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 를 도입하면서 2015년 중앙단위 한국친환경농 업협회로 설립됐다.

무안=이기성기자

"멸종위기 광주 수달, 로드킬 막자" 광주환경운동연합, 시민 모금 시작

광주 지역 환경 단체가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지 조사와 로드킬(Roadkill) 예방 활동을 앞두고 모금에 나섰다.

광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회 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수달 보호를 위한 모 금 운동(일명 소셜 펀딩)을 벌인다고 29일 밝 혔다.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달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개체 보호에 나설 목적으로 모금 운 동을 하고 있다.

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폐사 신고된 광주 지역 수달 13마리 중 9마리가 광주천・영산강 변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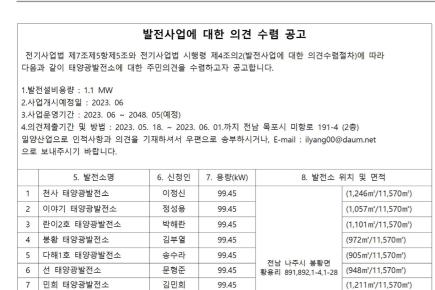
잇단 사고에도 지역 내 로드킬 예방 장치나 수달 현황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.

환경운동연합은 기부금으로 전문가·시민 활 동단과 수달 서식지를 조사해 자료로 정리한다.

또 수달 서식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로드킬 방지 시설(수달 안전 신호등)을 설치해 개체를 보호할 방침이다.

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보호 종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다. 물 환경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이기도 하다.

현재 수달은 무등산과 연결된 광주천과 영 산강·황룡강, 습지에서 목격되고 있다. 지난 2012년 광주시 광주천 동·식물 '자연생태계조 사'에서 수달 서식·배설물이 제2수원지~영산 강 합류지점(19.5km) 3개 모든 구간에서 확인 된 바 있다. 서선옥기자



99.45

99.45

안경연

정미승





